

다솜한국학교 교사·보조교사연수회, "참된 스승되자"

by KDT posted Aug 26, 2018

CCTV 설치
가정용/사업장용
월 페이먼트는 없습니다.
\$499.99 부터
sjsaivian@gmail.com
408-753-7072

CalBRE #01111226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믿음과 신뢰
실비아 리 부동산
협상의 고수! 준비된 북가주 지역
전문가와 지금 상담하세요.
Cell: (408) 460-0097

북부 캘리포니아(북가주) 서니베일 시에 위치한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는 2018-19학년도 개강을 앞두고 24-25일 이틀에 걸쳐 교사연수회 및 보조교사 연수회를 열었다.

첫째 날 교사 연수회를 통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참가 교사들의 강의, 놀이로 배우는 한국역사문화, 한국어 수업 방법과 활동, 그림책을 활용한 글쓰기 등을 주제로 각 학급 교사들이 30분씩 강의를 하는 것으로 수업 방향을 정했다.



둘째 날에는 개강 첫날 할 일, 반과 교과서 배정, 보조교사 훈련 등이 진행됐다.

교사와 보조교사가 함께 참석한 보조교사 연수회에서는 최미영 교장의 학교 소개와 '선배에게 듣는 다솜 보조교사, 궁금해요'라는 Q&A시간을 가졌다. 선배 보조교사들은 후배들의 질문에 경험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막힘 없이 대답했다.



특히, 보조교사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 선배들은 "처음 시작할 당시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인내심도 길러졌고,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태권도 반과 사물놀이 반을 맡았던 보조교사들은 "시작할 때 잘 못하던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공연 전 주에는 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이외에 위급 상황, 대피 방법, 사고시 대처 및 대피법, 교실에서 학생 지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등에 관해 논의를 하고 팀으로 나누어 보조교사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보조교사들은 연수를 마치면서 교사와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며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선서했다.

한편 연수회 후 지난 2017-18학년도에 보조교사로 봉사한 학생들에게 미국 대통령 봉사상(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이 수여됐다.



최미영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한국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보조교사가 되어 교사들과 협력해 학생을 지도하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한국학교와 지속적으로 인연을 맺고 맡은 일을 충실히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온안 기자>

Korea Daily Times Page view

Today : 7169 Yesterday : 6383 Total : 1306206